2024년 3월 10일 주일예배	
하나님의 일곱 가지 절기 :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고전 15:50-58

Ⅰ. 시작하는 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봤던 네 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무교절은 장사지내심,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에 반해 나머지 세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루신 일과 이루어진 일 사이를 살아가는데, 이 절기 없는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Ⅱ. 중심 말씀

1.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너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흔들릴 일들이 예기치 않게 다가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나팔이 울려퍼지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때 믿음으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합니다.

나눔 질문)_____

2.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기가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나의 일에 더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려 한다면,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 더 신경쓰려 한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길 원하십니다. 잠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며 채워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_____

3.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더 처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그 가슴앓이가 헛되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와 함께하십니다.

나눔 질문)_____

Ⅲ. 정리하는 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절기 없는 기간처럼 보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508)

(1)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2)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3)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게 부탁하셨네

후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